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에 나타난 정형화된 언어 사용이 작문 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

신 경 선
(서울대학교)

Shin, Kyungsun (2012). Formulaic language in KFL writing and Rater's perception of writing proficiency. *Language Research* 48.1, 77-96

It is well known that mastering of formulaic language can help foreign language learners to gain native-like competence. Empirical research, however, remains sparse in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This study aims to underline the need of research on Korean formulaic language and to recognize its crucial role in improving fluency and accuracy in KFL writing. And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riters' use of formulaic language and the raters' perception of writing proficiency. 30 compositions by KFL learners were analyzed by 2 judges in terms of their use of formulaic language, and assessed by 2 skilled raters and 2 unskilled raters.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the raters assigned higher scores to those compositions that had been written with a higher number of formulaic language. It implicates that appropriate and ample use of formulaic language would lead to improving their KFL writing proficiency. This empirical evidence should be a trigger for the further explorations of Korean formulaic language.

Keywords: formulaic language,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KFL writing, rater's perception of writing proficiency

1. 서 론

목표 언어(target language)를 모어 화자처럼 유창하고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것이 외국어 학습의 최종 목표라 할 때, 외국어 학습자들이 이러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찍이 학자들은 모어 화자의 발화에 주목하였다. Pawley와 Syder (1983)에 의하면 모어 화자들의 뇌에는 어휘 꾸러미(lexical bundles)가 저장되어 있어 저장된 꾸러미가 많을수록 더욱 자신의 의견을 유창하게 표현할 수 있다. 모어 화자들에 의해 관습적으로 함께 쓰이는 어휘소와 문법 형태소의 꾸러미를 정형화된 언어(formulaic language)¹⁾라 하는데, 모어 화자들의 두뇌에

1) 모어 화자들에 의해 관습적으로 함께 쓰이는 어휘소와 문법 형태소의 꾸러미를 가리키는 용어는

존재하는 심성 어휘집(mental lexicon)에는 유창하고 정확한 언어 구사를 가능하게 하는 정형화된 언어가 준비되어 있고, 정형화된 언어를 많이 보유한 사람일수록 발화 시 인지적 부담을 덜게 되어 발화 처리의 과정과 시간이 단축되므로 더욱 유창하게 발화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정형화된 언어는 화자가 단어 선택과 문법적 분석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의 단위(unit)로 인식하여 사용하는 표현²⁾이므로 외국어 학습자들이 개별 어휘와 문법에 주의를 기울여 하나의 문장을 구성하고 생산해내는 과정을 통해 발화하는 대신 자신의 심성 어휘집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정형화된 언어를 사용하여 발화하게 된다면 발화 반응 속도와 발화 속도가 빨라지며 따라서 모어 화자처럼 자연스럽게 유창한 발화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형화된 언어의 교수가 말하기 유창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이미 유아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국내외에서 다양한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로 증명되었다. 또한 이러한 효과는 비단 말하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또 다른 표현 영역인 쓰기 유창성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즉 풍부하고 적절한 정형화된 언어의 사용은 외국어 학습자 작문의 질적인 향상을 이끌 것이며 독자 혹은 평가자는 이러한 글을 높이 평가할 것이라는 기대는 매우 낙관적이다. 더욱이 한국어 정형화된 언어의 사용역(register)별 분포를 조사한 결과, 영어와는 달리 구어보다는 문어에서 더 많이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준 외 2010: 178).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형화된 언어 관련 연구는 유창성, 발화 속도와 발음의 정확성 향상 등 말하기와의 관계에만 편중되어온 경향이 짙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에 나타난 정형화된 언어의 사용 양상이 평가자의 평가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 정형화된 언어의 사용과 쓰기 유창성 및 정확성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쓰기 교육, 나아가 한국어교육에 있어 정형화된 언어 교육의 중

연구자의 관점과 연구 분야에 따라 매우 다양한 용어로 논의되어 왔다. Wray (2002)는 56개 이상의 용어가 사용되었다고 했는데 영어교육학 분야에서 사용된 대표적인 용어는 '다중 어휘 단위 (multi-word units), 어휘 꾸러미(lexical bundles), 정형화된 언어/표현/연결어구(formulaic language/expressions/sequences), 기제조된 표현/연결어구(prefabricated expressions/sequences), 굳은 표현(routines)' 등이 있다(이은주 2009, 최준, 송현주, 남길임 2010, Schmitt 2010).

- 2) Jiang과 Nekrasova (2007)는 정형화된 언어가 기제조된 하나의 언어 단위로 화자의 심성 어휘집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영어 모어 화자와 비모어 화자의 정형화된 언어의 처리 과정 실험 연구를 통해 증명하였다. 실험 참여자에게 정형화된 언어, 문법적으로는 맞지만 정형화된 언어가 아닌 표현, 그리고 비문법적인 유사 정형화된 언어를 온라인 어구 판단 과제(online phrase judgment task)로 부과하여 문법적으로 옳고 그름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모어 화자와 비모어 화자 모두 정형화된 언어를 처리할 때의 반응 속도가 더 빨랐고 정답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형화된 언어가 통사적 분석 과정이 없이 처리되므로 처리 속도가 빠르고 오류도 적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다.
- 3) 최준 외(2010)에 의하면 한국어에서는 5-gram의 정형화된 언어가 학술문어 > 학술구어 > 자유 대화의 순서로 분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요성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한국어 교수 및 평가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평가자의 평가와 일반 한국어 모어 화자를 대표하는 미숙련된 평가자의 평가를 비교하여 정형화된 언어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에 나타난 정형화된 언어의 사용 양상과 평가자의 작문 평가 결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 2)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에 나타난 정형화된 언어의 사용 양상과 평가자의 작문 평가 결과는 숙련된 평가자와 미숙련된 평가자 간에 차이가 있는가?

2. 이론적 배경

2.1. 정형화된 언어의 정의

정형화된 언어는 응용언어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내외 연구가 모두 영어에 국한되어 있을 뿐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는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이준규와 유현조(2011)가 지적한 대로 한국어 정형화된 언어에 관한 연구는 정형화된 언어 목록은 고사하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 어떤 언어적 대상을 정형화된 언어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또한 연구자에 따라 매우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정의와 범위도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⁴⁾

대표적인 연구로 손꼽히는 Wray (2002: 9)는 ‘정형화된 연결어구(formulaic sequence)’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연속적이든 비연속적이든 문법에 의해 생성되기보다는 하나의 연결어구 형태로 미리 제조되어 저장되어 있다가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내렸다.

a sequence, continuous or discontinuous, of words or other elements, which is or appears to be, prefabricated: that is, stored and retrieved whole from memory at the time of use, rather than being subject to generation or analysis by the language grammar.

후에 Wray (2008: 12)는 심성 어휘집에 단어는 물론이고 여러 개의 단어로 구성된 연결체도 저장되는데 이 연결체는 형태소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하나의 단위로 인식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형태소에 상응하는 단

4) Conklin과 Schmitt (2008)도 이 분야의 문제점 중 하나로 용어의 통일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위(morpheme equivalent unit: MEU)’라는 용어를 제안하여 정형화된 언어의 범위를 구체화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형태소에 상응하는 단위는 ‘단어나 단어의 연결체로 그 구성요소의 형태-의미 연결이 일어나지 않는 형태소와 같이 사용되는 것’으로 정형화된 연결어구에 비해 그 범위가 제한적이며 화자와 청자 개인의 표현에 한정된다(Wray 2008: 8).⁵⁾ 그러나 Wray (2008: 95-97)는 정형화된 연결어구의 정의는 약정적 정의(stipulative definition)로 기제조된 것으로 보이는 모든 표현을 아우르기는 하나 이론 중립적(theory-neutral)인 용어가 아니므로 신중하게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모어 화자가 선호하여 고빈도로 연관된 개별 어휘 항목들의 신속한 조합’⁶⁾인 ‘정형화된 언어(formulaic language)’가 좀 더 중립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라고 밝혔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장 포괄적이고 중립적인 용어라 할 수 있는 정형화된 언어를 사용할 것이다.

아울러 Wray (2002, 2008)를 근거로 삼아 ‘한국어 정형화된 언어’는 한국어 모어 화자의 심성 어휘집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관습적으로 함께 사용되는 어휘소와 문법 형태소의 덩어리이며, 한국어 모어 화자인 평정자가 자연스럽게 하나의 단위로 인식하는 표현으로 규정한다. 즉 언어, 관용어, 속담은 물론 평정자가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한다면 두 개 이상의 정형화된 언어가 결합한 표현도 하나의 정형화된 언어로 규정한다.⁷⁾

2.2. 정형화된 언어와 제2언어 숙달도

정형화된 언어의 교수가 학습자의 제2언어로서의 영어 숙달도 향상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이미 국내·외의 여러 학자들에 의해 증명되었다. 특히 표현의 다양성, 발화 속도, 발음의 정확성 등 말하기 유창성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핀 실험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벨기에 대학생 영어 학습자의 영어 정형화된 언어 사용과 말하기 숙달도의 관계를 살핀 Boers, Eyckmans, Kappel, Stengers, Demecheleer (2006)의 연구에 의하면 인터뷰 시험 결과, 정형화된 언어를 강조하는

5) 형태소에 상응하는 단위(MEU)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Wray 2008: 12).

“a word or word string, whether incomplete or including gaps for inserted variable items, that is processed like a morpheme, that is, without recourse to any form-meaning matching of any subparts it may have.”

6) “the result of the preferential, speedy combination of frequently associated individual lexical items.”(Wray 2008: 96)

7) Pawley와 Syder (1983: 210)은 두 개 이상의 정형화된 언어가 결합된 정형화된 언어의 예로 ‘NP be-TENSE sorry to keep-TENSE you waiting’과 같은 표현을 들었다. 한국어의 예를 들면, 전화 대화에서 주로 사용되어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전화 좀 해 달라고 전해 주세요.’와 같은 표현은 ‘전화 좀 하다’, ‘-아/-어 달라다’, ‘-(라)고 전하다’, ‘-아/-어 주다’, 총 네 개의 정형화된 언어가 결합하여 하나의 정형화된 언어가 된 경우라 볼 수 있겠다.

교수법(instructional method that emphasizes noticing formulaic sequences)으로 교수된 학습자 집단이 전통적인 교수법으로 교수된 학습자 집단보다 말하기 유창성(fluency)과 표현의 다양성(range of expression)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연구로는 5~6세 영어 학습자에게 정형화된 언어를 가르친 후 집단을 수준별로 구별한 뒤 유아들의 유창성과 유창성 지속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진현정과 정동빈(200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연구 결과, 유아의 발화 속도와 발음의 정확도가 모두 향상되었는데, 특히 하위 집단 학습자의 말하기 유창성 향상 정도와 유창성 지속 정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두드러지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영어를 가르칠 때 개별적으로 단어와 문법을 가르치는 것보다 정형화된 언어를 중심으로 하나의 덩어리로 가르치는 것이 학습자들의 장기기억에 보다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진현정, 정동빈 2007: 556).

쓰기와 관련된 연구로는 2개의 고빈도 단어로 구성된 언어만으로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기는 하였으나 한국인 대학생 영어 학습자의 작문에 나타난 언어의 사용 양상과 평가자의 작문에 대한 인식을 살핀 Chon과 Shin (2009)이 있다. 연구 결과, 다양한 언어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사용한 학습자의 작문이 고급 어휘(higher lexical sophistication levels)를 사용한 학습자의 작문보다 유창성과 정확성이 높은 작문으로 평가 받았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영어를 제2언어로 학습하는 경우 정형화된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학습자가 유창성과 정확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정형화된 언어 사용이 작문 평가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 한국어교육에 있어 정형화된 언어 교육의 중요성을 밝히고 보다 활발한 한국어 정형화된 언어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및 절차

3.1. 한국어 학습자 작문 자료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작문은 서울 소재 A대학교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4급을 마친 학습자⁸⁾의 작문으로 학습자의 국적, 나이, 한국어 학습

8) 본 기관은 일반적인 한국어 교육 과정과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되는 기관으로 4급을 마친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시간은 800시간이다.

시간 및 배경, 학습 목적, 한국 내 거주 환경 등이 모두 유사하다. 본 작문은 5컷으로 구성된 그림을 보고 김정호의 일생을 10문장 내외의 짧은 글로 쓰는 과제이며 기말 시험의 일부로 시간적 제약과 사전이나 교과서 등의 자료를 참고할 수 없는 환경에서 이루어졌다. 김정호의 일생과 대동여지도에 관해서는 수업 시간에 학습한 내용이나 김정호의 일생을 쓰는 활동은 수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작문 자료는 평정자 간 신뢰도 검증을 위한 자료 8개, 평가자 간 신뢰도 검증을 위한 자료 5개와 본실험을 위한 자료 30개, 총 43개의 작문으로 연구자에 의해 고유명사(김정호, 대동여지도) 오류와 띄어쓰기 오류가 수정되어 입력된 PDF 파일 상태로 평정자와 평가자에게 전달되었다. 작문의 배열순서는 MS Excel의 랜덤 정렬을 이용하여 작문 수준이나 길이 등과 무관하게 무작위로 배열된 상태로 번호가 매겨져 평정자와 평가자에게 전달되었다.

3.2. 정형화된 언어 분석

3.2.1. 정형화된 언어 평정자

본 연구에서는 2명의 평정자(judges)⁹⁾가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에 나타난 정형화된 언어를 선별하여 작문에 나타난 정형화된 언어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¹⁰⁾ 본 연구에 참여한 2명의 평정자는 한국어 어휘론과 관련된 주제로 석사 논문을 쓴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 학위 소지자이다. 이들은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한국어를 교수한 경험이 없어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에 익숙하지 않다. 따라서 한국어교육을 전공하고 한국어 어휘론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한국어 모어 화자로,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에서 편견 없이 모어 화자의 직관으로 자연스러운 한국어 정형화된 언어를 선별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어 평정자로 선정하게 되었다.

3.2.2. 평정자 교섭

2명의 평정자(이후 평정자A와 평정자B)는 평정자 훈련 후 학습자 작문 중 무작위로 선택한 5개의 작문을 서로 상의 없이 개별적으로 1차 사전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형화된 언어 평정 시 문법적 오류가 없이 올바르게 사용된 정형화된 언어

9) 본고에서 ‘평정자(judges)’는 ‘평가자(raters)’와 구별되는 용어로 학습자의 작문에 나타난 정형화된 언어를 선별한 한국어 모어 화자를 가리킨다. 평정자는 장르 분석 연구인 김영규와 이은하(2008)에서 이동마디(move)나 단계 같은 텍스트 본질의 경계를 판단한 한국어 모어 화자를 칭한 용어로, 특정 언어적 대상을 구별해내어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 일맥상통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평정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10) 이는 2명의 평정자가 실험 참여자들의 인터뷰 시험 내용이 녹음된 자료를 들으면서 정형화된 언어의 유형별 사용 횟수를 측정한 Boers 외(2006)의 연구에 근거를 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Boers 외(2006) 참조.

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반복적으로 사용된 정형화된 언어는 한 번만 인정하는 유형(type)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맞춤법 오류는 평정자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하였다.

1차 사전 분석 결과를 비교해 보니 2명의 평정자가 수행한 정형화된 언어 분석 결과에 차이가 있었다. 이는 사전 분석에 앞서 평정자 훈련 과정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정형화된 언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한국어 정형화된 언어에 관한 선행 연구의 부족으로 구체적인 참고 자료가 부족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1차 사전 분석 후 두 평정자간의 불일치 양상을 검토하면서 차이가 나타난 이유를 찾아내고 보완하기 위한 평정자 교섭을 실시하였다. 평정자 교섭 과정에서 두 평정자는 분석 결과를 하나씩 검토하면서 일치된 견해로 합의하기까지 충분한 토의를 거쳤다. 평정자간 분석 결과에 차이가 나타난 주된 원인은 어디까지를 정형화된 언어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김정호는 지도를 만드는 데에 일생을 바쳤다’와 같은 문장의 경우 ‘만드는 데’와 ‘-에 일생을 바쳤다’를 각각 2개의 정형화된 언어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정형화된 언어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 평정자들은 모어 화자의 직관에서 볼 때 ‘만드는 데에 일생을 바쳤다’를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과 Pawley와 Syder (1983: 210)¹¹⁾에 근거를 두고 ‘-을/를 -는 데에 일생을 바치다’를 하나의 정형화된 언어로 볼 것에 합의했다.

평정자 교섭을 마친 후 1차 사전 분석 시 분석했던 작문과는 다른 3개의 작문(이후 작문P2-1~3으로 칭함)으로 2차 사전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작문 P2-1>은 평정자A는 13개, 평정자B는 16개, <작문P2-2>는 평정자A는 14개, 평정자B는 15개, <작문P2-3>은 평정자A는 11개, 평정자B는 9개의 정형화된 언어를 선별하여 1차 사전 분석에 비해 일치에 가까운 결과에 도달했다. 2차 사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차 평정자 교섭 과정을 진행하면서 평정자들은 문법적인 오류를 범했을 때의 정형화된 언어 사용 인정 범위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협의를 할 수 있었다. 각 2회에 걸친 사전 분석과 평정자 교섭을 통해 한국어 정형화된 언어에 대한 구체적인 평정 기준을 마련한 평정자들은 각기 본실험의 대상이 된 학습자 작문 30개에 나타난 정형화된 언어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¹²⁾ 최종 결과 분석에 반영한 정형화된 언어의 개수는 평정자A와 평정자B의 평정 결과 중 정형화된 언어의 개수가 더 적게 평정한 결과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평정 결과는 아래 표 1과 같다.

11) 각주 7 참조.

12) 정형화된 언어 평정 과 작문 평가 과정은 동시에 진행되었으나 서로 다른 4명의 평가자와 2명의 평정자에 의해 별개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표 1. 정형화된 언어 평정 결과

작문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평정자A	5	9	6	5	5	6	3	10	5	7	10	6	5	12	11
평정자B	5	8	5	5	5	7	3	10	6	7	10	6	5	12	10
평정 결과	5	8	5	5	5	6	3	10	5	7	10	6	5	12	10
작문 번호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평정자A	5	12	15	4	12	9	8	6	6	10	13	12	8	2	6
평정자B	5	12	15	4	12	9	8	6	6	10	13	13	8	2	5
평정 결과	5	12	15	4	12	9	8	6	6	10	13	12	8	2	5

3.3. 작문 평가

3.3.1. 작문 평가자

3.3.1.1. 숙련된 평가자

숙련된 평가자(이후 숙련평가자A, 숙련평가자B)는 한국어 교육 경력이 매우 풍부한 한국어 강사 2명으로 국내의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평균 10.5년의 한국어 교수 경력이 있으며 다양한 국적과 수준의 학습자를 교수하고 평가한 경험이 있다. 아울러 평균 3.5개의 국내의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여러 종류의 한국어 교재로 교수한 경험이 있으므로 특정 한국어 교육 기관의 교육 내용에 대해 편향된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

3.3.1.2. 미숙련된 평가자

미숙련된 평가자(이후 미숙련평가자C, 미숙련평가자D)는 한국어교육 전공자 2명으로 석사 과정 중이거나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의 한국어 교수 경력이 없고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을 평가해본 경험이 없다. 따라서 특정 한국어 교육 기관의 교육 내용에 편향된 인식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에 익숙하지 않다. 그러므로 미숙련된 평가자는 한국어교육학 지식은 있으나 작문 평가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은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 한국어 모어 화자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다.

3.3.1.3. 평가자 간 신뢰도

숙련평가자A와 B, 그리고 미숙련평가자C와 D는 평가자 간 신뢰도 검증을 위해 학습자 작문 중 무작위로 선택한 5개의 작문을 서로 상의 없이 개별적으로 1

차 사전 평가를 실시하였다. 1차 사전 평가는 총체적 평가를 먼저 실시한 후 하루 이상의 시간 간격을 두고 분석적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평가자 간 신뢰도는 SPSS 17.0으로 급내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를 측정하여 검증하였다. 총체적 평가 방식으로 평가한 결과에 대해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숙련된 평가자들은 .806으로 기본 가정을 충족하였다. 분석적 평가에 대한 결과도 .846으로 기본 가정을 충족시켜 평가자 간 신뢰도는 확보되었으나 5개의 작문 중 유독 1개의 작문에서 두 평가자 간에 점수 차이를 보여 해당 작문에 한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979로 평가자 간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미숙련된 평가자들의 경우 평가자 간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총체적 평가는 .588, 분석적 평가는 .551로 기본 가정을 충족하지 못해 평가자 간 신뢰도가 확보되지 않았다. 이에 2차 사전 평가를 실시한 결과, 급내상관계수 .821로 기본 가정이 충족되어 평가자 간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 미숙련된 평가자들의 1차 사전 평가에서 평가자 간의 평가 결과에 차이가 나타난 것은 이들은 한국어 학습자들의 작문에 낯선 일반 한국어 모어 화자의 관점에서 작문을 평가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미숙련된 평가자들의 평가가 일치를 보이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일반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을 대표하는 성격을 띠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3.3.2. 작문 평가 기준 및 절차

학습자의 작문에 대한 평가는 글의 전체적인 인상에 근거하여 평가하는 총체적 평가(holistic scoring) 방식과 범주를 구별하고 범주별로 기술된 수행 능력 평가 기준에 따라 글을 평가하는 분석적 평가(analytic scoring)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총체적 평가는 TOEFL의 TWE의 평가 기준¹³⁾을 참고하여 본 실험에 맞도록 1~5점의 5간척도로 평가 기준을 수정하여 제시하였다.¹⁴⁾ 분석적 평가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중급의 평가 기준과 이완기(2007)를 참고하여 글의 내용 및 과제 수행, 글의 조직, 어휘 및 표현, 글의 정확성과 맞춤법 등에 관한 글쓰기 기술의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각각 1~5점의 5간척도로 평가하여 총 2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¹⁵⁾ 특히 어휘 및 표현 범주는 ‘맥락에 맞는 어휘를 다양하

13) Weigle (2002: 113)에서 재인용.

14) 총체적 평가를 위한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다.



15) 정형화된 언어 사용과 각 범주별 평가 결과와의 관계를 살피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므로 분석적 평가의 범주별 배점은 점수 분포를 고르게 하였다. 분석적 평가를 위한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다.

게 사용하였으며, 모어 화자와 같은 자연스러운 표현들을 정확하고 유창하게 사용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하여 작문에 나타난 정형화된 언어 사용 양상에 대한 평가자들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자들은 먼저 작문에 대해 총체적 평가를 한 후 4일 이상의 시간차를 두고 동일한 작문에 대한 분석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모든 평가 과정을 마친 후 필요한 경우 평가자들과 개인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각 평가 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데 반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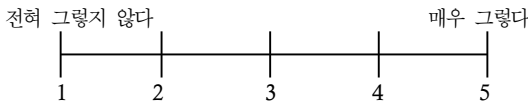
4. 연구 결과

4.1. 정형화된 언어 사용 양상과 평가자의 작문에 대한 인식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에 나타난 정형화된 언어 사용 양상은 SPSS 17.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평균 7.3개의 정형화된 언어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¹⁶⁾ 분석 결과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정형화된 언어 사용 양상 기술통계 분석 결과

	빈도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정형화된 언어	30	15	2	7.30	3.050



범주	평가 기준	평가 기준				
		1	2	3	4	5
내용 및 과제 수행	과제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통일성 있는 내용으로 주제를 잘 표현하였는가?					
글의 조직	글이 유기적으로 구조화되었으며, 담화 장치 및 뒷받침 문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완결성을 갖추었는가?					
어휘 및 표현	맥락에 맞는 어휘를 다양하게 사용하였으며, 모어화자와 같은 자연스러운 표현들을 정확하고 유창하게 사용하였는가?					
글쓰기 기술	철자, 문장 부호, 문장 호응의 정확도가 높고, 문장 내 형태 오류의 빈도가 낮게 나타났는가?					

16) 평정자에 의해 분석된 주요 정형화된 언어는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대표적인 예)
 -라는 N(김정호라는 사람), -겠다는 결심을 하다(만들겠다는 결심을 했다), -을/를 무릅쓰고(위험을 무릅쓰고), -게 된 동기(만들게 된 동기), -을/를 는 데에 일생을 바치다(지도를 만드는 데에 일생을 바쳤다), -라고 하다(라고 한다), -기 위해서(만들기 위해서), 조건 팔도 등

작문의 전반적인 인상을 평가하는 총체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Pearson의 상관계수를 구하여 학습자의 작문에 나타난 정형화된 언어와 평가자의 인식 간 상관관계에 대한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하였다($p < .01$).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숙련된 평가자의 작문에 대한 인식과 작문에 나타난 정형화된 언어 간의 상관계수는 .85로 매우 높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으며¹⁷⁾ 미숙련된 평가자의 작문에 대한 인식과 정형화된 언어 간의 상관계수도 .69로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형화된 언어 사용 양상에 따른 평가자의 작문에 대한 인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분석적 평가 결과와 정형화된 언어 간의 상관계수도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1$). 평가자의 분석적 평가 결과와 정형화된 언어 간의 상관계수는 숙련된 평가자가 .80, 미숙련된 평가자가 .73이었다.

표 3. 평가자의 평가 결과와 정형화된 언어 사용 간의 상관계수(n = 30)

	숙련평가자		미숙련평가자	
	총체적 평가	분석적 평가	총체적 평가	분석적 평가
정형화된 언어	.85**	.80**	.69**	.73**

** $p < .01$

평가 결과와 정형화된 언어 사용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정형화된 언어 사용은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평가자들은 정형화된 언어를 풍부하게 사용한 학습자의 작문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학습자의 작문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을 평가하는 총체적 평가는 실제로 글을 읽었을 때 독자의 반응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알려진 평가 방식이라는 점(Weigle 2002: 114)에서 볼 때, 일반 한국어 모어 화자를 대표하는 미숙련된 평가자들의 평가 결과가 작문에 나타난 정형화된 언어 양상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일반적인 한국어 모어 화자가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을 읽었을 때 적절하고 풍부한 정형화된 언어를 사용한 작문을 수준 높은 글로 평가한다는 근거로 볼 수 있겠다.

17) 상관계수의 실제적인 의미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른다(성태제 2007: 247).

상관계수의 범위	상관관계의 해석
±.00 ~ .20	상관이 매우 낮다
±.20 ~ .40	상관이 낮다
±.40 ~ .60	상관이 있다
±.60 ~ .80	상관이 높다
±.80 ~ 1.00	상관이 매우 높다

4.2. 숙련된 평가자와 미숙련된 평가자의 작문에 대한 인식

4.2.1. 숙련된 평가자의 작문에 대한 인식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에 대한 숙련된 평가자의 평가 결과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숙련된 평가자의 총체적 평가 평균은 3.33, 분석적 평가 총점 평균은 13.87이다.¹⁸⁾

표 4. 숙련평가자의 평가 결과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평가 방법	빈도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총체적 평가	30	5	2	3.33	0.99
		총점	30	19.5	8.5	13.87	3.12
분석적 평가	내용 및 과제 수행	30	5	2	3.65	.87	
	글의 조직	30	5	2	3.63	.84	
	어휘 및 표현	30	5	2	3.30	.92	
	글쓰기 기술	30	5	2	3.28	.77	

분석적 평가 범주 결과 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한 결과,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하였는데 표 5와 같이 정형화된 언어 사용에 대한 평가인 어휘 및 표현 범주와 글의 형태적 정확성과 문장의 호응에 대한 평가인 글쓰기 기술 범주간의 상관계수가 .84로 매우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1$). 특히 분석적 평가 범주 중 어휘 및 표현 범주와 글쓰기 기술 범주 간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것을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정형화된 언어를 많이 사용한 학습자의 작문이 글의 정확성 또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숙련평가자의 분석적 평가 범주 간의 상관계수($n=30$)

	내용 및 과제 수행	글의 조직	어휘 및 표현	글쓰기 기술
내용 및 과제 수행		.78**	.77**	.71**
글의 조직	.78**		.81**	.80**
어휘 및 표현	.77**	.81**		.84**

** $p < .01$

18) 총체적 평가의 만점은 5점, 분석적 평가의 만점은 20점이다. 자세한 내용은 각주 14과 15 참조.

이는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형화된 언어 사용 양상과 총체적 평가 결과 간의 관계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총체적 평가 결과와 분석적 평가 범주 중 어휘 및 표현 범주, 글쓰기 기술 범주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하였는데 각각 .86과 .79로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1$). 또한 정형화된 언어 사용과 분석적 평가 범주 중 어휘 및 표현 범주, 글쓰기 기술 범주 간의 상관계수도 각각 .74와 .70으로 상관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즉 숙련된 평가자는 정형화된 언어를 다양하고 적절하게 사용한 학습자의 작문에 대해 표현의 유창성과 문장의 정확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글의 전반적인 인상에 대한 평가를 할 때도 높이 평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6. 숙련평가자의 정형화된 언어, 총체적 평가와 어휘 및 표현, 글쓰기 기술 범주 간 상관계수($n=30$)

	어휘 및 표현	글쓰기 기술
정형화된 언어	.74**	.70**
총체적 평가	.86**	.79**

** $p < .01$

4.2.2. 미숙련된 평가자의 작문에 대한 인식

학습자의 작문에 대한 미숙련된 평가자의 평가 결과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은데 총체적 평가 평균은 3.18, 분석적 평가 총점 평균은 16.52이다.

표 7. 미숙련평가자의 평가 결과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평가 방법		빈도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총체적 평가		30	5	1	3.18	.94
총점		30	20	13	16.52	2.01
분석적 평가	내용 및 과제 수행	30	5	3	4.50	.47
	글의 조직	30	5	3	4.17	.63
	어휘 및 표현	30	5	3	4.08	.68
	글쓰기 기술	30	5	2	3.77	.57

일반적인 한국어 모어 화자를 대표하는 미숙련된 평가자의 어휘 및 표현 범주 평가 결과와 정형화된 언어 사용 간의 상관계수는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p < .01$).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숙련된 평가자의 어휘 및 표

현 범주 평가 결과와 작문에 나타난 정형화된 언어 간의 상관계수는 .79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총체적 평가 결과와 어휘 및 표현 범주 평가 결과 간의 상관계수는 .91로 상관이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미숙련된 평가자는 정형화된 언어를 많이 사용한 학습자의 작문을 높이 평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일반적인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을 읽었을 때 다양한 정형화된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한 학습자의 작문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볼 수 있겠다.

표 8. 미숙련평가자의 정형화된 언어, 총체적 평가와 어휘 및 표현, 글쓰기 기술 범주 간 상관계수(n=30)

	어휘 및 표현	글쓰기 기술
정형화된 언어	.79**	.46**
총체적 평가	.91**	.63**

** p < .01

그러나 정형화된 언어와 글쓰기 기술 평가 결과 간의 상관계수는 .46으로, 어휘 및 표현 범주와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데에 반해 상관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미숙련된 평가자들과 심층 면접을 실시했다. 그 결과, 미숙련된 평가자들은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을 평가한 경험이 없으므로 작문에 나타난 오류를 발견하는 것 자체가 미숙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형태적 오류나 문장 호응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로 평가한 경우가 허다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미숙련된 평가자들의 분석적 평가 범주 간의 상관관계를 측정된 결과,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결과가 있었으나 숙련된 평가자의 평가 결과에 비해 상관계수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표 9). 이는 미숙련된 평가자들은 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관계로 작문을 평가할 때 각 범주별로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다. 30개의 작문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작문1에서 작문30까지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경험이 없는 미숙련된 평가자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으리라 생각된다.¹⁹⁾

19) 미숙련된 평가자들의 평가 결과는 총체적 평가와 분석적 평가 결과를 각 작문별로 세부적으로 비교했을 때도 일관성이 낮았다. 예를 들어 미숙련평가자C의 경우 총체적 평가 시 2점을 준 작문에 분석적 평가 시 18점을 주기도 하였으며, 미숙련평가자D의 경우 총체적 평가 시 4점을 준 두 작문이 분석적 평가 결과는 각각 15점과 20점으로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표 9. 미숙련평가자의 분석적 평가 범주 간의 상관계수(n=30)

	내용 및 과제 수행	글의 조직	어휘 및 표현	글쓰기 기술
내용 및 과제 수행		.66**	.59**	.45**
글의 조직	.66**		.72**	.66**
어휘 및 표현	.59**	.72**		.65**
글쓰기 기술	.45**	.66**	.65**	

** p < .01

4.2.3. 숙련된 평가자와 미숙련된 평가자의 작문에 대한 인식 차이

숙련된 평가자와 미숙련된 평가자의 총체적 평가 결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다. 숙련된 평가자의 총체적 평가 결과는 평균 3.33, 표준편차는 1.100이며, 미숙련된 평가자의 총체적 평가 결과는 평균 3.18이며 표준편차는 1.049이다. 숙련된 평가자와 미숙련된 평가자의 총체적 평가 결과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t 통계값은 .764, 유의확률 .446으로서 유의수준 .05에서 평가자에 따른 총체적 평가 결과의 차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 > .05$). 즉 평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숙련된 평가자와 일반 한국어 모어화자를 대표하는 미숙련된 평가자 모두 글의 전반적인 인상에 대해 평가할 때는 평가 결과가 일치한다는 것이 확인됐다.

표 10. 평가자 집단에 따른 총체적 평가 결과 독립표본 t 검정 결과

	숙련된 평가자	미숙련된 평가자
평균	3.33	3.18
표준편차	1.100	1.049
사례 수	60	60
t 통계값		.76
유의확률		.446

숙련된 평가자와 미숙련된 평가자의 평가 결과와 정형화된 언어 사용 간의 상관관계를 측정된 결과,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p < .01$). 숙련된 평가자와 미숙련된 평가자 모두 정형화된 언어의 사용과 총체적 평가 그리고 어휘 및 표현 범주 평가 결과 간의 상관계수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숙련된 평가자와 미숙련된 평가자 모두 정형화된 언어가 많이 나타난 작문을 전반적으로 우수한 작문으로 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글의 유창성도 높게 평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1. 정형화된 언어와 평가자별 총체적 평가, 어휘와 표현 범주간의 상관계수(n=30)

	정형화된 언어와의 상관계수	
	총체적 평가	어휘 및 표현
숙련된 평가자	.85**	.74**
미숙련된 평가자	.69**	.79**

즉 다년간의 풍부한 평가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숙련된 평가자와 일반 한국어 모어화자를 대표하는 미숙련 평가자 모두 다양한 정형화된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한 학습자의 작문을 그렇지 않은 작문보다 높이 평가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과, 확인되었다.

숙련된 평가자와 미숙련된 평가자의 총체적 평가 결과에 차이가 없었으나 분석적 평가 결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형화된 언어 사용 양상에 대한 평가로 볼 수 있는 어휘 및 표현 범주의 평가 결과는 숙련된 평가자들의 평균은 3.30, 표준편차는 1.078이며 미숙련된 평가자들의 평균은 4.08, 표준편차는 .787이다. 숙련된 평가자와 미숙련된 평가자의 어휘 및 표현 범주 평가 결과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t 통계값은 -4.54, 유의확률 .000으로서 유의수준 .05에서 평가자 집단에 따른 어휘 및 표현 범주의 평가 결과의 차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 < .05$). 그리고 숙련된 평가자들의 평가 결과에 의해 정형화된 언어 사용 양상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진 글쓰기 기술 범주 평가 결과는 숙련된 평가자들의 평가는 평균 3.28, 표준편차는 .922이며, 미숙련된 평가자들의 글쓰기 기술 범주 평가 결과는 평균 3.77이며 표준편차는 .767이다. 숙련된 평가자들과 미숙련된 평가자들의 글쓰기 기술 범주 평가 결과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t 통계값은 -3.12, 유의확률 .002로서 유의수준 .05에서 평가자 집단에 따른 글쓰기 기술 범주 평가 결과의 차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 < .05$).

표 12. 평가자 집단에 따른 분석적 평가 결과 독립표본 *t* 검정 결과

평가범주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i>t</i>	유의확률
내용 및 과제 수행	숙련평가자	60	3.65	1.117	-4.99	.000
	미숙련평가자	60	4.50	.701		
글의 조직	숙련평가자	60	3.63	1.008	-3.30	.001
	미숙련평가자	60	4.17	.740		
어휘 및 표현	숙련평가자	60	3.30	1.078	-4.54	.000
	미숙련평가자	60	4.08	.787		
글쓰기 기술	숙련평가자	60	3.28	.922	-3.12	.002
	미숙련평가자	60	3.77	.767		

숙련된 평가자와 미숙련된 평가자의 분석적 평가 결과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평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미숙련된 평가자는 숙련된 평가자와는 달리 분석적 평가의 점수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표 12).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작문의 장점에 주목하게 되는 총체적 평가 결과보다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분석적 평가 결과가 낮은 것과는 반대가 되는 결과이다.²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심층 면접 결과, 미숙련된 평가자는 평가 경험의 부재로 일관된 평가 자체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숙련된 평가자들과는 달리 미숙련된 평가자들은 글의 구조, 문장의 호응, 응집성, 그리고 형태적 오류를 발견해내는 기술이 부족하므로 미숙련된 평가자는 눈에 띄는 오류만으로 작문을 평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어휘론에 대한 지식을 갖춘 한국어 모어 화자가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에 나타난 정형화된 언어를 분석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한국어 교수 및 평가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평가자와 한국어 교수 및 평가 경험이 없는 미숙련된 평가자에게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을 총체적인 평가와 분석적인 평가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 두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첫째, 작문에 나타난 정형화된 언어 사용 양상과 평가자의 작문에 대한 인식을

20) 평균 경력 7년 4개월의 한국어 교수 경력이 있는 평가자들이 참여한 김정숙(2010)의 연구 결과에서도 총체적 평가 결과보다 분석적 평가 결과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김정숙(2010) 참조.

살펴본 결과, 평가자는 정형화된 언어를 많이 사용한 학습자의 작문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의 전반적인 인상을 평가하는 총체적 평가 결과는 물론 분석적 평가 범주 중 한국어 모어화자와 같은 표현의 자연스러움, 즉 글의 유창성을 평가하는 범주에서 정형화된 언어의 사용 양상과 평가 결과 간에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작문에 나타난 정형화된 언어 사용 양상과 숙련된 평가자와 미숙련된 평가자 간의 작문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숙련된 평가자와 미숙련된 평가자 모두 적절하고 풍부하게 정형화된 언어를 사용한 작문을 우수한 작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숙련된 평가자의 평가 결과, 정형화된 언어를 다양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학습자의 작문을 유창성과 정확성이 높은 글로 평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로 증명된 바, 한국어 학습자가 글을 쓸 때 정형화된 언어를 적절하고 다양하게 사용하면 독자는 그 글을 더욱 유창하며 수준이 높은 글로 평가한다. 그러므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개별적인 단어와 문법에 주목하기 보다는 정형화된 언어를 중심으로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하도록 이끌어 글의 정확성 및 유창성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어 교재 및 교수법 개발과 같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의 적용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국어 모어 화자의 직관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정형화된 언어를 선별하기에는 부족하며 이론적 근거를 확고히 하기 위해 한국어 정형화된 언어에 대한 정의와 한국어 정형화된 언어 목록 연구가 절실함을 느꼈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한국어 학습자의 정형화된 언어 처리 과정 연구, 정형화된 언어의 어절 수에 따른 한국어 학습자의 습득 양상 및 정형화된 언어 사용의 관계 연구, 한국어 학습자의 정형화된 언어의 발달 단계 연구 등 한국어 정형화된 언어에 관한 후속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김영규, 이은하. (2008).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한 한국어 연구 논문 서론의 장르 분석 연구”. 『이중언어학』 36, 43-67.
- 김정숙. (2010). “한국어 쓰기 능력 평가 방안: 종합적 채점과 분석적 채점 결과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43, 81-99.
- 성태제. (2007). 『알기 쉬운 통계분석: 기술통계에서 구조방정식모형까지』. 서울: 학지사.
- 이완기. (2007). 『영어 평가 방법론』. 문진미디어.

- 이은주. (2009). “한국인 영어 학습자 코퍼스를 활용한 정형화된 연결어구 분석”.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6(2): 321-340.
- 이준규, 유현조. (2011). “한국어 교육을 위한 정형표현 찾기: 잦은 명사 결합을 중심으로”. 『응용언어학』 27(2): 53-71.
- 진현정, 정동빈. (2007). “어휘덩어리 지도가 수준별 5~6세 유아들의 유창성 발달에 미치는 효과”. 『영어교육』 62(4): 541-564.
- 최준, 송현주, 남길임. (2010). “한국어의 정형화된 표현 연구”. 『담화와 인지』 17(2): 163- 190.
- Boers, F., Eyckmans, J., Kappel, J., Stengers, H., and Demecheleer, M. (2006). Formulaic sequences and perceived oral proficiency: Putting a lexical approach to the test. *Language Teaching Research* 10, 245-261.
- Chon, Y.V. and Shin, D. (2009). Collocations in L2 writing and rater’s perceived writing proficiency. *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25(1): 101-129.
- Conklin, K. and Schmitt, N. (2008). Formulaic Sequences: Are they processed more quickly than nonformulaic language by native and nonnative speakers? *Applied Linguistics* 29(1): 72-89.
- Jiang, N. and Nekrasova, T.N. (2007). The processing of formulaic sequences by second language speakers. *The Modern Language Journal* 91(3): 433-445.
- Pawley, A. and Syder, F. (1983). Two puzzles for linguistic theory: Nativelike selection and nativelike competence. In J. C. Richards & R. W. Schmidt (Eds.), *Language and communication* (191-227). London: Longman.
- Schmitt, N. (2010). *Researching vocabulary: A vocabulary research manual*.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Weigle, S.C. (2002). *Assessing writ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ray, A. (2002). *Formulaic language and the lexic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ray, A. (2008). *Formulaic language: Pushing the boundar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신경선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Email: kyungsun@snu.ac.kr

접수일자 : 2012. 3. 30

수정본 접수 : 2012. 4. 20

게재결정 : 2012. 4. 24